

정부, 유전 인수에 70억달러 투입

생산유전 중심 5억배럴 확보 추진 ...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도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원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산유전 매입의 구체적인 대상 등에 대한 검토를 8월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6월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5억배럴 규모에 70억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유전 매입을 위해 석유공사, SK 등 석유개발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상 광구와 지역, 자금 조달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석유공사를 지역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본금 출자를 2005년 731억 원에서 2006년 1645억 원으로 늘리는데 이어 2007년에는 2900억 원 상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06년부터 자원개발 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하고 자원개발 특화대학 및 전문대학원 설립도 검토기로 했다.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산자부는 FTA에 대비해 산업구조 고도화, 한-미 산업기술협력 강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의 기회요인별 3대 총괄전략과 자동차·섬유·기계·전자·부품소재 등 5대 업종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 고유가로 인한 수입증가로 2006년 1-5월 무역수지 흑자가 49억3000만달러로 2005년 1-5월보다 48억4000만달러 감소했다며 2006년 수출은 당초 예상한 3180억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나 수입이 당초 예상한 295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 무역수지 흑자가 2005년 232억달러에 비해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3>